

9 2024 VOL. 339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The all-new KONA Electric 출시

Your future playground.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99

Jutaan* 부터

※ 자카르타 기준, 전기차 부가가치세 1% 혜택 적용.

*지역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 블루링크
(커넥티드 카 서비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실내 V2L



완충 시 최대 600km 이상 주행
(Prime Long Range, NEDC 기준)



프론트 트렁크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www.hyundai.com



월간 한인뉴스 9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장소: 암바라와 성(스마랑, 중부자바)

일시: 2024년 8월 27일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최계월 “조국의 영광, 양국의 우호,
회사의 번영”

8

〈특집〉책속의 책

2024 항일독립운동지 역사탐방

14

암바라와로 떠난 시간여행 〈박승헌〉

17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목적에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변경 규정

18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19

재인니한인회, ‘코라스 챔피언십’ 열어



contents

2024. 9. 통권 339호

22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4

[여기가 맛집]

Paulaner Bräuhaus 〈황지영〉

27

[디카시 풍경] 밥상 〈김동환〉

31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 개최

3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3]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36

[서상영의 한방칼럼 17]

생활 한의학 1

41

적도문학상 시상식

42

[자카르타의 아침]

가장 이상적인 드라이버 티 높이

〈손상현〉

46

[행복에세이]

개복숭아 〈하연수〉

48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완벽하지 않아도 특별해”

〈김별님〉

51

떠오르는 아세안, 그 중심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다

〈김태희〉

54

[칼럼] 인도네시아에서 한인의 삶

〈조연숙〉

56

[반려동물 랜선집사]

너무도 예쁜 나의 토비

〈이소은〉

58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9 〈신성철〉

61

중부자바한인회 소식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7)

채무보증 〈이승민〉

68

생활정보

최계월 “조국의 영광, 양국의 우호, 회사의 번영”



논설위원 신성철

투철한 애국심과 진정한 글로벌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조국의 영광, 양국의 우호, 회사의 번영’은 한국남방개발(주)(KODECO/코데코)의 사훈이다. 매우 독특한 사훈에는 코데코 창업자 최계월 회장의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에 폐허가 된 조국이 영광을 되찾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우호 관계를 통해 회사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최 회장의 소망을 사훈에 담았을 것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다.

평생 해외자원개발에 매진해온 최계월 회장은 2015년 11월 향년 96세로 일본에서 별세했다. 최 회장의 삶은 애국, 대승적 기업관, 글로벌 기업가정신, 한·인니 민간외교의 선구자,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초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잘살아 보겠다는 용기를 낸 무렵인 1963년 최 회장은 한국남방개발을 설립해 우여곡절 끝에 1968년에 대한민국 최초 해외투자 기업을 만들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외화보유액이 5천 달러를 밑돌았을 때, 코데코는 외환보유고의 10% 규모인 450만 달러를 빌려 인도네시아에서 산림개발에 투자했다.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고 남부 칼리만탄주 바뚜리찐(Batu Licin) 지역에 27만ha를 개발해 모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지금도 현지 간선도로의 이름이 ‘잘란 라야 코데코’(Jalan Raya Kodeco)이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최 회장은 183cm의 우람한 체구와 선이 굵은 얼굴에 운동으로 다져진 강인한 신체. 보스 기질과 배짱, 유머 감각 등을 두루 갖췄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수하르토 대통령 등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다. 개발 초기인 1968년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해병대 상륙사단 출신 부사관 120명과 함께 맹수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원시 정글에 들어가 원목개발을 했다. 임상조사와 위급환자 후송 등 목적으로 1969년 한국인 최초로 경비행기를 구매하는 등 수많은 일화를 남길 만큼 생각과 행동이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최 회장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애국자이다. 동서냉전기인 1964년 북한은 인도네시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압도했고, 1960년대 초 인도네시아는 한국 친선방문단을 거부할 만큼 우리와의 관계 구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1962년 2월 도쿄에서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수카르노 대통령 간 만남을 주선했던 한-인니 외교의 물꼬를 트는 데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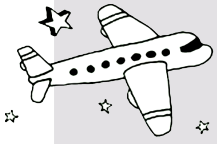
앞서 1960년대 초 이리안자야(서파푸아)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일본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재계와 돈독한 인맥이 있던 최 회장은 외교 수완을 발휘해 네덜란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고맙게 여긴 수카르노 대통령은 1962년 최 회장을 인도네시아에 특별 초청했고, 최 회장의 산림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데코는 대한민국 1호 해외투자에 이어 1981년 ‘해외 유전개발 제1호’라는 새 역사도 썼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중동발 오일쇼크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원유 확보와 새로운 유전 개발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최 회장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최측근인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인맥을 활용해 서부 마두라 광구 유전개발 사업을 성사시켰다. 베니 장군은 1969~1973년 기간에 주한 총영사로 근무했던 지한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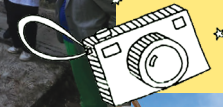
앞서 최 회장은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부탁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던 유조선 뱃머리를 돌려 한국에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1년 한국인 최초로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든 서부 마두라 해상유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수익이 나지 않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코데코의 사세가 기울었다.

초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맡은 최계월 회장은 교육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다. 인도네시아에 유치원, 학교 등을 지어주는 등 현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 우리 기업 진출 초창기인 1976년 자카르타에 한국학교 설립(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을 위해 당시로써는 거금인 13만 달러를 쾌척했다. 최 회장의 유전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인 정필립 코데코에너지 대표는 2020년 1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큰 금액의 장학금을 JIKS에 기부하고, 교내 나래홀 강당 앞에 최계월 회장 흉상을 설치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안에 없는 것이 그곳에 있다. 나가면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매진해온 고인 삶의 궤적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다. 한-인니 관계가 지금과 같이 뿌리 깊게 발전할 수 있는 데에는 최 회장의 기여가 적지 않다.



2024 항일독립운동지 역사탐방



인도네시아의 외딴 불모지에 흩어진 과거의 자취를
챙기고 모아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겨야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이번 역사탐방은...



인도네시아 한인의 자취를 밟는 본 역사탐방을 통해 재외한인 학생들의 역사 소양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 운동가들을 기리고 바른 역사관을 세길 기회가 되길 바라며, 역사탐방에 적극 참여할 진정성 있는 학생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0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에 최초의 한인이 첫 발을 내딛은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를 편찬한 이래 ‘인도네시아 한인역사 바로세우기’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4년 올해는 인도네시아 한인 학생(10~1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을 통하여 묻혀졌던 이야기를 되살리고 무관심 속에 사라져갈 역사의 현장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 탄압자, 항거자, 민중 중에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는 타국에서 그 세 종류의 입지로 산 군속들과 자신을 대비해 시간여행을 해보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희생, 가난, 비루함을 매일 짊어지고 살았을 이곳 인도네시아에서의 하루하루를 상상해보길 바랍니다. 서류상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니 정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놓여진 상황의 실증을 회피하고, 외출과 휴식이 있었다고 식민지배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목숨을 위협받았던 국가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정립되어야 하는 역사가 있기에 그 첫 역사탐방지로 ‘중부자바주 암바라와 지역 항일독립운동지’로 정하였습니다.

잘 고증하지 않은 지난 일이라는 틈새와 현재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과연 맞는 태도일까요? 부끄러운 역사라고 각색하거나 포장할 일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배움이 있고 기억이 있고 전승이 있다면 우리 다른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주권이 없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라고 스스로를 역사와 거리를 두거나, 개인만을 우선시하는 현세대에 선대의 경험과 가르침을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국의 외딴 불모지에 흩어진 과거의 자취를 챙기고 모아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2024 항일 독립운동지 암바라와 역사탐방

2024년 8월 27일, 28일

주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후원: 재외동포청, 중부자바한인회

1박 2일의 스마랑·암바라와 지역 역사탐방으로 미흡하나마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으로 갈수록 마모되고 스러지는 국외 독립투쟁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살아서 재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더 보람있고 값진 역사 탐방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항일 독립운동지 역사탐방

▶인도네시아의 외딴 불모지에서 흩어진 과거의 자취를 챙기고 모아
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의미있게 되새김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8월 27일, 2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한인 고
등학생들과 함께 스마랑 지역 역사탐방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한인의 자취를 밝히는 이번 역사 탐방을 통해 재외한인학생들의 역사 소양
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바른 역사관을 새길 기회를 가졌다.

다수의 JI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과 타 국제학교 10학년,

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된 25명과 한인
회 박재한 회장을 비롯한 손한평 수석부회장,
대사관 류완수 영사, JIKS 박은주, 김진혁 교
사 2인, 사산문화원 이태복 원장, 문인협회 김
주명 사무국장 및 한인회 사무국을 포함 총35
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가루다항공편의 스마
랑으로 향했다.

조선인 포로감시원과 조선인 ‘위안부’ 등의
군속의 신분으로 1942년 9월 14일 자카르타 탄
중쁘리옥 항에 도착하여 힘든 삶을 견뎌 낸 선조들의 자취를 따라 첫날 첫 탐방지인 암바라와로 이동했다.
드라마 세팅장처럼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암바라와 성은 옛 모습의 처연함을 담고 있지 않았고 관광지
로써 탈바꿈이 진행 중이었다. 허락된 소수를 제외한 탐방원들은 입구까지만 입장이 가능했다. 한편, 중
부자바한인회(회장 채환)와 한인회의 노력으로 공원 입구에 세워 질 태평양전쟁 피해자 추모비가 준비
되어 있었다.



암바라와 성. 추모비건립 예정지 앞



암바라와 위안소의
과거와 현재





암바라와 항일의거지(민영학, 손양섭, 노병한의 자결지)를 거쳐 철도박물관, 성요셉 성당(일본군의 연합국 국민 억류소, 무기고)을 방문하였다. 이어 수모위노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에서 탐방단의 목소리로 결기가 넘치는 청년당의 강령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Novotel Semarang에서 탐방 첫 날을 마감했다.



항일의거지(무기고)-성요셉성당



수모위노-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라왕 세우

둘째 날에는 스마랑 대표 관광명소인 라왕 세우(천개의 문)에 들렀다. 라왕 세우는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1904~1907년에 건설되었고, 1942년까지 네덜란드령 동인도 철도회사의 본부이며 1945년 10월 14일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선언될 때, ‘스마랑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철도 청년단(AMKA, Angkatan Muda Kereta Api)과 일본군 간의 5일 전투로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지금은 철도 역사박물관과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고 약 600개의 문으로 실내의 연결성과 규모에서 그 당시 철도회사의 포부를 엿볼 수 있었다. 탐방대원 학생들은 이태복 원장의 설명을 시종 진지하게 들었다. 라왕 세우를 끝으로 탐방일정은 마무리 됐다.

탐방대원인 홍보배(JIKS 10) 학생은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가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 수모위노에 독립을 위한 투쟁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머나먼 외지에서 항일독립투쟁의 흔적을 좇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 속에 감사함과 경외감이 느껴졌다” 고 소회를 말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저녁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태평양전쟁이라는 한편의 서사를 보고 듣는 의미있는 여정이었다.



아이들에게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서 항일 독립 운동지 역사 탐방에 대한 공지를 받고 아이가 신청해서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선발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위해 한인회의 어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학교뿐 아니라 다른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도 신청하여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하였기에 예비 뽑기를 통해 참여할 아이들이 정해졌고, 제 아이도 뽑혔습니다.

저는 아이가 설렘으로 역사탐방을 기다리는 것을 표현할 때마다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대표하여 가는 탐방이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로 가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에서 머문 시간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 아이가, 우리의 역사는 학교 역사 수업시간에만 배웠던 아이가 우리 선조들이 인도네시아 땅까지 보내져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1박 2일의 일정을 보내고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스마랑 공항에 잘 도착했다는 비행기 날개 사진 한 장. 일정 마치고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했다며 푸짐한 저녁 식탁 사진 한 장.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다는 메시지 한 개가 연락의 전부였던 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와~~~”라며 역사탐방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암바라와 조선인 소녀 위안소에서, 의거 현장에서, 철도 박물관에서, 라왕 세우에서 이 먼 타지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하고, 포로가 되고, 포로 감시원이 되고, 성 노예가 되고, 독립 투사가 되었던 그들의 비애와 아픔에 분노하는 아이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고통 받았던 그 때가 불과 80여년 전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힘없음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삶이 무너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목숨까지 바쳤던 선조들이 불과 80여년전에 이 곳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현장을 가보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직접 두 발로 걸어서 그 분들이 걷고 뛰셨던 그 곳에 발을 딛고 선 자체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고려청년독립당의 강령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에는 그들의 의지와 정신이 그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해지며, 이 정신을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꼭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아이를 보니 책을 통해 글로 배우는 몇 년의 역사 수업보다 1박 2일의 현장체험이 이렇게 강력하게 아이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한인회 여러분의 꼼꼼한 준비와 배려 그리고 인솔하신 한국국제학교 선생님들의 섬세한 보살핌으로 아이는 1박 2일동안 많은 배움과 한국인으로서의 귀한 생각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루어진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사탐방이었기에 쉽지 않은 결정과 준비과정이었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 시작한 편지가 꽤 길어졌습니다.

모쪼록 이런 기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하며 가치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학부모 고정화 드림

역사의 숨결을 찾아 암바라와로 떠난 시간여행



박승현 (학생기자, ACS Jakarta, 10학년)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한인 이주 104주년을 맞이하여 《암바라와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역사 탐방을 진행하였다. 사전 공지를 통해 선발된 25명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와 국제학교 학생들은 1박 2일의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위해, 8월 27일 오전 7시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모였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 회장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류완수 영사, 한인회 손한평 수석 부회장과 인도네시아 조선인 위안소 기록을 담은 소설, <암바라와>를 발간한 이태복 사산 자바문화 연구원장과 김주명 시인,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사 등이 참여했다.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학생들은 한인회에서 준비한 탐방팀 티셔츠, 기념 뱃지와 간식, 그리고 탐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지가 담긴 가방을 받았다.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는 한인회의 마음을 느끼며 탐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젠데랄 아마드 야니 공항에 도착한 뒤, 일행은 곧바로 티크 트리(Teak Tree)라는 현지 식당으로 이동했다. 허기진 학생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했고, 그와 함께 역사적인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이번 암바라와 역사 탐방은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우리 학생들이 역사적 소양을 쌓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활동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0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한인이 첫 발을 내디딘 이후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2020.12)를 편찬한 바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탐방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대사관 류완수 영사는 “이번 8월은 경술국치 주간입니다. 스마랑을 방문한 이유는 이곳에 항일 독립 운동과 관련된 사적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숙소나 고려독립청년당이 투쟁한 곳을 학생들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국가의 중요성, 국가가 없으면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실력을 키우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역사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점들을 강조했다.

일본 군부대 및 연합군 포로수용소와 위안부 시설로 이용되던, 역사의 비극이 서려 있는 '암바라와 성'

식사 후, 1시간 거리의 ‘암바라와 위안부 시설’을 방문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바깥 풍경은 밝았지만, 마음은 그와는 반대로 무거워졌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역사 탐방의 첫 번째 목적지인 ‘암바라와 성’에 내렸다. 암바라와 성은 1934년에 건설되어 처음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정치범과 성인 수감자들을 위한 교도소로 사용되었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 군부대 및 연합군 포로수용소와 위안부 시설로 이용되던 장소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장소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암바라와 성은 군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랜 시간 머물 수 없었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어서 학생들은 옛 모습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 비극적인 역사로 가득한 위안부 시설을 떠나기 전, 학생들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단체 사진을 찍었지만, 아무도 웃을



수 없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암바라와 성의 무거운 역사와 그곳에 서린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고려독립청년단 소속 '3인의 열사들의 활동지와 교회'

이후 우리는 고려독립청년단 소속이었던 민영학, 손양섭, 노병한 '3인의 열사'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 열사들은 일본 군무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일제의 통치에 맞서 싸운 조선인들로,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 일제에 반대하며 몰래 무기를 훔쳐, 역류소장, 교도소장, 어용 상인 등을 포함한 12명을 사살하고, 끝내 장렬히 자결을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신비로우면서도 비현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학생들은 민영학 열사가 투쟁했던 곳 중 하나이자 일제의 무기고로 사용되던 성당으로 이동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순식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고려독립청년당의 결성지 '수모위노(Sumowono) 보병훈련장'

오후가 되자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갔지만 박재한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류완수 영사님을 비롯한 이태복 사산문화 원장님, 김주명 시인님과 JIKS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모위노에 위치한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를 방문했다. 예상보다 작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 한인들의 투쟁의 역사는 그 어떤 웅장한 건축물보다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먼 타국에 남은 독립운동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은 숙연해졌다.

역사 탐방 두 번째 날이 밝았다. 학생들은 개운한 정신으로 두 번째 날을 맞이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일까, 아니면 역사적인 여정을 통해



느낀 감정들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일까,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햇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가짐도 어제와 달랐다. 우리가 마주한 역사 속 인물들의 용기와 희생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머물렀던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깨달음이 오늘의 나를 어제와 다르게 만들어 주었다.

천개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라왕 세우 철도박물관'

과거 네덜란드 동인도가 건축한 이 건물은 자바섬의 중심에 있었기에 더욱 효과적인 통재 수단이 철도로서 당시 건축된 철도 관련 건물로서 동인도 총독부의 일부인 건물이다. 수많은 문들이 있기 때문에 '라왕 세우', 즉 천개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건물 내부에는 극소수의 철도 관련 물건들과 안내문으로 과거 동인도나 일제에 반대한 자들을 넣어둔 곳이다. 결국 수많은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귀신의 집이라고도 한 유명하다. 대부분 방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텅 빈 공간이 참으로 우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탐방을 마친 참가자들의 생생한 소감이다. 박은주 JIKS 역사 교사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사탐방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이 잘 이어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독립군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다. JIKS의 박지나 학생은 “이번 탐험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게 되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독일 국제학교의 류호진 학생은 “암바라와의 역사를 깊이 탐구하며 애국심이 강해진 뜻깊은 탐험이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12학년 박민준 학생은 “타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민준 학생의 말처럼, 이 경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흔히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영학 열사와 동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맞섰던 그 장소에 두 발로 서서 그들의 결단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오롯이 체감할 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성당과 그 속에 담긴 역사의 흔적들을 보며 단순히 책에서 읽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2024년은 한국인이 태평양 전쟁의 포로 감시원으로 징용되어 인도네시아 땅에서 피로써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벌였고, 그 후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 104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한인뉴스》 학생 기자로서 이번 역사 탐방에 참여한 나를 포함한 25명의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세금 목적을 위한 금융 정보 접근 권한 변경 규정 PMK No. 47 tahun 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17년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였고, 201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 긴급명령 1/2017호를 공포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시행령인 PMK No.70/PMK.03/2017를 발효하였다. 이후 PMK No. 19/PMK.03/2018로 개정되었고, 이번에 공포한 PMK No.47/2024는 세금 목적을 위한 금융 정보 접근에 관한 기술 지침 시행령(PMK No. 70/2017)의 3번째 개정 시행령이라 하겠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기관, 기타금융서비스기관 및 법인이 세금 목적으로 금융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욱 강화된 규정이라 하겠다.

이번 규정에는 개인 소유 금융계좌를 식별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은 금융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과 기존 고객이라고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예금, 인출 및 이체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회피방지규정도 추가되었는데 간혹 금융기관이 고객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해외 금융자산은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에 가입된 국가간 교환을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자국내 금융계좌내역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인 납세자는 매년 말 기준으로 자신이 소유한 자산 목록을 익년 3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WP OP)가 은행 계좌, 보험 및 증권 거래소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계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OJK(Otoritas Jasa Keuangan)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OJK의 금융계좌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SP2DK 가를 발부한다.

물론 납세자가 소득신고 한 금액이 늘어난 재산 금액보다 현저히 많다고 하면 간단히 수정신고로 해결이 되겠지만, 소득금액이 재산 증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탈루 소득으로 간주된다. <끝>



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8월 15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주최로 대사관 강당에서 열렸다.

한인사회 주요인사 및 대사관 관계자, 각계각층의 한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박수덕 대사대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대독하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긴장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고 제시했다. 덧붙여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 박재한회장은 기념 축사에서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비난과 희생, 억울함과 죽음, 가난의 비루함을 하루하루 짊어지며 살아야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한인동포로서 숙연해진다”며 일본에게 속아 조선인 군속으로 판중령리옥항에 도착한 1,400명이 태평양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겪었던 고된 삶을 떠올리게 했다. 또한 “정립되어야 하는 역사가 있기에 한인회는 선별한 고등학생들과 함께 35명이 8월 27일, 28일 1박2일로 중부 자바 스마랑 지역에 역사탐방을 떠난다. 이국의 외딴 불모지에 흩어진 과거의 자취를 챙기고 모아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겨야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다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합창한 뒤 김우재 한인회 명예고문의 만세삼창 선창으로 모두가 우렁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재인니 한인회, 제 4회 ‘코라스 챔피언십’ 개최



제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제 4회 ‘코라스 챔피언십(KORAS CHAMPIONSHIP)’이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 주최로 Damai Indah Golf (PIK)에서 개최하였다. 2017년 8월 15일, 한인회 골프대회를 KORAS(Korean Association) CHAMPIONSHIP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2022년에 3회 대회에 이어 올해 4회를 맞이했다. 이날 한인회 행사에는 180명의 한인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8월 27일 28일 양일간 있을 인도네시아 한인의 자취를 밟는 역사탐방을 통해 재외한인 학생들의 역사 소양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양하여 바른 역사관을 세길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한국의 국립국악고 학생

들의 초청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있을 9월 20일 ‘한인의 날’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한인회가 준비한 코라스 챔피언십에 참가한 한인동포들을 만났다.

이장근 아세안대표부 대사는 “광복절의 의미처럼 기쁘고 좋은 날이 한인들에게도 많았으면 좋겠다. 아세안대표부도 한인사회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에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러 한인단체와 협회 및 참가자의 후원이 함께 한 만찬과 행운권 추첨, 가수 홍동균의 즐거운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김우재 명예고문의 색소폰 연주에 동년배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은 한인회의 지나 온 역사와 화합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 행운의 주인공은 김형근 한인회 이사
로 현대 자동차가 경품으로 걸린 4개(후원: 박재
한회장 크레타 1대, 강형구이사 스타게이저 2대,
현대자동차 코나1대)의 파3 홀 중 3번홀에서 홀
인원하여 많은 축하를 받았다.

- 메달리스트: 이근대
- A위너: 김종현
- B위너: 이춘복
- 여성위너: 차영주
- 1st 러너: A 박현철 B 간재봉
- 룽기스트: 고병석
- 니어리스트: 승범수



베스트 포즈상 "너희들 언니 말 잘 들어~ 자중해!"





2024 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자카르타 부동산, 수도 이전에도 불구하고 강세 유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지만,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며, 이는 외부 요인보다는 상업적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8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Jones Lang LaSalle (JLL) Indonesia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미 구축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라바야와 발리도 외국 및 현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2분기 동안 투자자들은 주택, 오피스, 호텔, 서비스 아파트, 소매점, 학교, 병원, 노인복지 시설 등 부문에 집중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의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서비스 아파트 또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비즈니스 허브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신수도 누산타라는 아직 인구가 적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JLL인도네시아 헤롤리 수헤르만 수석이사는 8월

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신수도 누산타라는 유망하지만 자카르타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누산타라) 개발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둥공과대학(ITB) 지질학자 헤리 안드레아스에 따르면, 자카르타 인구는 약 1,100만 명 이상이고,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3,5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인 신타 캅다니는 “누산타라는 인구가 적은 점이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누산타라의 인구를 200만 명, 2060년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수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누산타라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쇼핑센터협회(APPBI) 회장인 알폰 주스 위자야는 “투자자들은 자카르타에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니, 2025년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일부는 제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PPN 또는 Value-Added Tax))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은 제외된다고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DPR)와 정부는 2021년 신(新) 세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UU HPP)을 제정하고,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이어 2025년 1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더 효율, 공정 그리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PPN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9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품, 교육, 의료, 교통 등 재화와 용역은 PPN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할 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PPN을 인상하지 않았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어 “PPN 인상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세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 PPN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해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니, 대규모 해고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해고돼

인도네시아에서 울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량해고가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이상이 해고됐다고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다 앙고로 뿌뜨리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 국장은 “(올 1월부터 8월 13일까지) 44,195명이 해고됐다”며, 지난 7월 말 현재 42,863명이 해고됐고, 불과 2주만에 2천명이 추가로 해고됐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42,863명이 해고됐으며, 이 중 섬유, 봉제, 신발 등 제조업 부문에서 22,356명, 비제조업 부문에서 20,507명이 해고됐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 7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22,356명이 해고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11,656명), 농업·임업·수산업(2,918명), 광업(2,771명), 판매업(1,902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자바주가 13,7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카르타(7,469명), 반뜰(6,359명) 서부자바(5,567명), 중부술라웨시(1,812명) 순이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지자 지난 7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및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니인, 말레이 의료관광 연 100만 명... 의료진·비용 경쟁력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며,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75만 명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의 꼬르넬리우스 뿌르바 논설위원은 8월 10일자 칼럼에서,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말레이시아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썼다.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꼬르넬리우스는 의료관광객의 약 60%가 국내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향한다고 전했다.

꼬르넬리우스에 따르면, 특히 말레이시아의 의료진은 의료 처치와 처방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치료 비용도 자카르타나 메단보다 저렴해 많

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의료진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 환자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의료관광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은 약 165조 루피아(미화 10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의료 전문가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국내 의료 인프라와 의료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더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꼬르넬리우스는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 사회>

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누산타라와 자카르타 동시 열려

8월 17일 열리는 제79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는 수도 자카르타와 신수도 예정지인 동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Nusantara)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슬로건도 ‘새 수도 누산타라, 인도네시아 번영’ (Nusantara Baru, Indoneisa Maju)이다.

79주년 행사는 독립기념일 행사 규정에 따라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Waktu Indoneisa Barat 또는 자카르타 시간)을 기준으로 열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순간 기념의식’ (Upacara Peringatan Detik-detik Proklamasi Kemerdekaan Republik Indonesia)은 이날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누산타라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고, 자카르타 대통령궁 행사는 마루스 아민 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당선인이 주재했다. 행사 내외빈도 누산타라와 자카르타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수도 누산타라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나?”

현대어에서 누산타라(Nusantara)는 (1)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이름과 (2)인도네시아 군도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중세시대인 14세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위세를 떨쳤던 마자파히트(Majapahit) 제국에서 사용된 누산타라는 마자파히트가 직접 지배하는 자바섬, 발리섬, 마두라섬을 제외한 바깥쪽의 섬들을 의미했다. 20세기에 누산타라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를 일컫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고, 2022년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더해졌다.

누산타라라는 단어는 고대 자바어로 ‘섬’을 의미하는 Nusa와 산스크리트어로 ‘사이’, ‘가운데’, ‘간격’, ‘공간’, ‘다른’, ‘바깥쪽’ 등을 의미하는 Antara가 합쳐져서 “바깥쪽 섬”이라는 뜻이 됐다.

누산타라는 단어는 1336년 자바 고대 왕국인 마자파히트의 가자마다 재상의 맹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그보다 앞서 1255년 마자파히트의 전신인 고대국가 싱하사리의 까르파느가라가 ‘드비판타라 devipantara’ (누산타라와 동의어)라는 단어를 사용해 먼저 개념을 제시했다.

드비판타라는 원나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

바섬 동부의 싱하사리를 중심으로 주변 해상왕국들의 정치 연합체인 드비판타라를 구상했다. 따라서 14세기의 드비판타라 즉 누산타라는 마자파히트의 영향력이 미쳤던 수마트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남부, 필리핀 민다노오 지역, 브루나이, 동티모르 및 대만까지 포함했다. (파푸아뉴기니 제외)

이후 마자파히트의 멸망과 함께 잊혔다가, 1920년에 어니스트 프란시스코 유진 다우웨스 데커(Ernest Francois Eugene Douwes Dekker, 일명 Setiabudi)가 인도나 인도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독립국의 이름으로 누산타라를 제안하면서 현대 인도네시아어에 등장했다. 스티아부디는 누산타라를 사방에서 메라우케까지의 현재 인도네시아 영토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자바섬 바깥쪽 섬들에서 자바섬을 포함하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필리핀 남부, 대만 등은 빠지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인도네시아의 군도(국가 내부/주변의 섬과 바다)에 있는 사회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방어적 통합을 포함한 단일공동체를 Wawasan Nusantara(군도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프라보워, 능동적 외교 활동 통해 국제무대에서 입지 강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8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Tenggara Backgrounder’ (이하 TB)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

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프랑스, 세르비아, 터기, 러시아 등 총 10개국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 및 국방부 장관들과 회담을 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서비스인 TB는 그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이러한 외교활동을 벌였지만 한편으론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했다.

프라보워는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러시아를 “위대한 친구”라고 칭하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라보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TB는 조코위가 경제 중심의 외교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방위 및 안보 요소를 외교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프라보워의 외교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시민, 신수도 누산타라로 가는 적백기 ‘환송’

지난 8월 10일 오전 국가기념비가 있는 자카르타 모나스(Monas) 광장에는 수천 명의 자카르타 시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이 모나스에 이른 아침부터 모인 이유는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국기인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이 호송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복제품인 국기와 독립선언문은 모나스에서 할림공항으로 이동해 공군 전용기로 발릭파판 스뽕간공항을 거쳐, 최근 완공된 누산타라 대통령궁으로 호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행사로 신수도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중부 칼리만탄 출신인 카치나 오조라와 남부 수마트라 출신인 케일라 아자라 푸르나마라 등 깃발계 양부대(Tim Purna Paskibraka) 소속 여성 대원 두 명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을 직접 들고 모나스부터 누산타라까지 이동했다.

이날 현지 언론 브리파 사투와 인터뷰한 한 시민

은 “행사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다”며 “매우 흥분될 만큼 자카르타 시민을 위한 멋진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솔리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오전 7시에 도착했다며, “자카르타에서 할림까지 적백기의 여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호송팀이 탄 전용기가 이날 오전 할림 공항을 이륙해 2시간 후에 발릭파판 스뽕간 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이 실린 차량은 2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호송팀의 호위를 받으며 발릭파판에서 누산타라로 이동해 신수도에 세워진 대통령궁에 무사히 도착했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와 자카르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데일리
인도네시아

밥상

아들은 흰 밥이 제일 좋단다, 아빠가 해줘서
둘만 먹어도, 반찬 없어도 된단다

따스하게 데워진 언어들 이 컷가에 일렁인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은 요리했을 그 말이
맛있었는지 내 눈 속에 자꾸 침으로 고인다

빈자리 가득한 밥상 위에 한가득
들꽃이 피어있다

詩, 이미지 : 김동환

—여기가 맛집!—

Paulaner Bräuhaus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네요. 한국은 습하고 더웠던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의 길목인 9월이 왔겠네요. 자카르타에서 지내다 보니,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바스락 낙엽들을 밟으며 걷는 산책길, 고약한 은행 냄새, 저녁의 가을 노을들이 참 그리웠는데 이번에 잠시 한국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지내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 같아요. 9월은 외로움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외로움의 계절 9월에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의 9월은 추석 때문인지 그동안 못 뵈 친척들도 만나고 고향에서 친구들도 만나는 화목하고 복잡한 9월이라서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추석에 한국에 잠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직장인 교민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인니에서 가족과 친척같이 가까이 지내는 분들과 만나서 추석 분위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침 오늘 분위기 좋은 beer bar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Grand Indonesia Mall 안에 있는 Paulaner라는 곳인데요. 혹시 편의점에 파는 수입맥주 캔 중에서 할아버지 그림이 그려진 Paulaner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독일 맥주 브랜드인데요. 그 맥주 브랜드에서 세계 곳곳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독일 맥주 하면 정말 유명하고 믿고 마실 수 있잖아요. 생맥주, 흑 맥주, 과일 맥주 등 여러 종류의 맥주부터 1리터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술을 즐기기에 제약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꽤 흥미로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해에서 살던 시절, 상해에도 이 Paulaner이 있어서 자주 가곤 했는데요. 안에 전반적인 분위기와 메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술 맛을 잘 몰라서 달고 맛있는 술만 먹는 편인데 Paulaner에는 여러 가지 과일 맥주가 있어서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같이 술자리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망고 beer를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라이브뮤직도 진행되어서 정말 펍 같은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시는 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꽤 유명한 라이브 가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게 대화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1차에 식사하면서 담소 나누시고 2차로 신나는 분위기 즐기기에 아주 딱입니다. 저는 맥주를 즐겨마시지는 않지만 이 식당의 안주를 너무 좋아해서 밥 먹으려도 자주 가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 최애 안주 몇 가지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Crispy Pork Knuckle (569,000 루피아 ++) 입니다. 돼지 족발 튀김인데요. 돼.지.족.발.튀.김이라는 이 단어만 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겉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족발 비계의 쫄득함을 촉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Sauerkraut라는 양배추를 싱겁게 절여서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와 함께 제공되는데요. 약긴 피클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름지게 느껴지더라도 질리지 않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요. ‘겉바속촉’의 진가라고 할 수 있는 포크너클을 gravy 소스에 찍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켜 보시면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 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Schnitzel Vienna Style (Pork) (236,000 루피아 ++)입니다. 슈니첼을 아시나요? 망치로 두들겨 연하게 만든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묻혀 튀긴 커틀릿의 일종으로 독일식 음식을 대표하는 요리인데요. 한마디로 유럽식 돈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튀긴 돼지고기 요리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 요리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일 때 많이 시켜서 든든히 먹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안에 고기도 연하고 부드러워 맥주 안주로 딱입니다. 돼지고기가 질린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치킨도 있으니 치킨으로 바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BBQ Pork Ribs (395,000루피아 ++)입니다. 바비큐 돼지 족립인데요. 술 없이 낮에 식사만 하실 거라면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리는 요리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날이나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느낌으로 저는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Paulaner에서 폭립으로 힐링한 적도 있습니다. 고기가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운 편이라 살도 아주 잘 발립니다. 꼭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Paulaner Platter (791,000루피아 ++)입니다. 2차로 맥주 정도만 즐기고 싶어서 너무 배가 부르다 하시는 분들께 사실 이 메뉴 하나만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독일 맥주는 뭐니뭐니 해도 소시지랑 먹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이 Platter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제 소시지들과 첫번째로 소개 드렸던 족발 튀김, 매시 포테이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식 양배추 김치 sauerkraut가 같이 제공됩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가볍게 안주정도로 같이 동행하신 일행분들과 나눠 드시기에 는 제격입니다. 라이브 뮤직 관람하며 집어먹기에 딱인 메뉴입니다.

보름달이 소원을 이루어 주는, 희망차고 북적북적한, 마음도 풍요로운 9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10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정보 : <Paulaner Bräuhaus>

음식 종류 : 양식

가격대 : Rp 300,000-700,000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목 오전 11:30- 오전 12:00

금~일 오전 11:30- 오전 01:00

주 소 : Jl. MH Thamrin No.1, Menteng,
Jakarta 10310 인도네시아

※ Google 참고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확산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3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 이세호)는 2024.8.22(목) 오후 5시 30분 자카르타에서 박수덕 대리대사,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발리 지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자카르타 지회 자문위원들의 오프라인 참석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오늘 정기회의는 △개회 및 축사 △8.15 통일 독트린 의견수렴 △2분기 의견수렴 결과보고 △통일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수덕 대리대사의 통일 강연은 자문 위원들과의 깊은 대화와 뜨거운 토의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세호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남아 남부협의회가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씀했다.

이에 박수덕 대리대사는 “동남아 지역 자문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세호 회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 하반기의 핵심 사업 및 특별 강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반기 중 북한에 대한 특강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며,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강 자리를 마련하자” 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북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북한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자” 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는 자문위원들의 열띤 논의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제공: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사무국)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다누레조 재상이 노리던 반응이었죠. 당시 뜨갈레조 저택과 그 일대에는 디포네고로 왕자 주변으로 모여드는 이슬람 학자들과 청년들 숫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여단급 부대 병력규모에 가까워지자 지척의 끄라톤 궁전을 장악한 다누레조 재상은 물론 브레더부르크 요새의 네덜란드군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되던 차였습니다. 그들로서는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 디포네고로 왕자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그의 힘을 크게 위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누레조 재상이 도로계획의 방향을 뜨갈레조로 틀어 디포네고로 왕자를 격분시키는 묘수를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조상의 묘소가 파헤쳐질 것을 알고도 가만 있을 후손이 있을 리 없을 터였고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 미끼를 덥썩 물고 만 것이죠.

“더 이상 디포네고로 왕자가 제멋대로 구는 꼴을 봐줄 수 없소. 이번 도로공사는 왕국을 위해서도 우리 네덜란드를 위해서도 더 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뚝 박는 사람들을 때리고 우리 측량사들을 쫓아 냈으니 이건 반역행위와 다름 아니지 않소? 당신이 디포네고로 왕자를 끌고와 사과를 시킨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왕족이든 귀

족이든 상관치 않고 뜨갈레조로 쳐들어가 그곳을 초토화시키고 말겠소!”

네덜란드 지방청사에서 다누레조 재상을 뒤에 세운 채 목에 핏대를 세우던 스미사르트 주지사/지방총독(Resident Smissaert)은 디포네고로 왕자의 삼촌 망꾸부미 왕자(Pangeran Mangkubumi)에게 노발대발하며 디포네고로 왕자를 잡아들이라고 악을 써댔습니다. 물론 망꾸부미 왕자가 이 사태를 잘 무마할 것이란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부와 다누레조 재상은 최소한 아무런 중재나 절충도 없이 디포네고로 왕자를 무조건 공격했다는 세간의 비난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내 말을 들을 녀석은 아니지만 한번 얘기는 해 보겠소.”

하명꾸부위노 3세가 죽고, 그보다 앞서 그 형제인 망꾸디닝랏 왕자, 머르타사나 왕자가 그들의 아버지 하명꾸부위노 2세와 함께 말레이 반도 빼냥섬으로 유배된 후 뒤에 남은 형제들의 만형이 된 망꾸부미 왕자는 자기 수하 백수십 명을 총동원해 뜨갈레조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너희 말 들을 놈 아니다.’

그도 하명꾸부위노 2세의 반골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조카를 만나러 온 망꾸부미 왕자는 디포네고로 왕자를 끄라톤으로 데려가긴커녕 그와 의기투합하여 함께 네덜란드와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삼촌 망꾸부미 왕자를 얼싸안던 그때에 망꾸부미의 전향을 알게 된 다누레조와 네덜란드 측은 망꾸부미에게 속은 것에 분개하며 마침내 본격적으로 군대를 풀었습니다. 1825년 7월 21일의 일입니다. 네덜란드군이 뜨갈레조로 들어가는 길을 폐쇄했을 때 디포네고로의 저택에는 망꾸부미 왕자가 데려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1,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군이 디포네고로 왕자를 체포하기 위해 곧 들이닥칠 것이란 소문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포네고로 왕자가 그들 앞에 나섰고 망꾸부미 왕자가 그 곁에 섰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몰랐던 것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곳은 네덜란드 기병대와 전투를 하기엔 매우 불리한 곳이니 시종들이 저들을 막는 동안 주력은 뜨갈레조가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여기 망꾸부미 왕자님을 따라 빠져나가 추격을 뿌리친 후 후방에서 집결해야 한다.”

스미사르트 주지사는 1825년 7월 20일 디포네고로 왕자가 망꾸부미 왕자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고 부지사 쉐팔리에(Chevallier)를 시켜 부르데부르크 요새의 기병대를 지휘해 왕자의 저택을 포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뜨갈레조의 초입에서부터 그들은 디포네고로 지지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쪽과 동쪽으로부터 밀고 들어가는 네덜란드군은 저항군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전술적으로 방어선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조금씩 물러서는 모습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화력

의 차이를 보인 전투에서 디포네고로 시종들의 전열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적잖은 인명피해를 교환하는 사투를 벌인 끝에 네덜란드군은 방어선을 뛰어넘었고, 이후 거의 일방적으로 짓쳐 들어가 저택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포네고로 왕자와 망꾸부미 왕자는 대부분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이미 그곳을 탈출한 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한 쉐팔리에 부지사는 디포네고로 왕자의 저택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뜨갈레조에서 고아슬라롱으로 퇴각

이 사건은 그 후 5년간 지속되는 자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었습니다. 습격을 당해 밀려난 썸인 디포네고로 왕자가 이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Sadumuk bathuk, sanyari bumi ditohi tekan pati!” (사두묵 바둑, 산야리 부미 디토히 뜨칸 빠띠!)

뜨갈레조를 빠져나가기 직전 디포네고로 왕자가 지지자들에게 외친 이 자바어 문장은 그후 디포네고로군의 모토가 되었는데 ‘머리를 한번 건드리면 손가락에도, 단 한 치의 땅을 뺏으려는 누군가의



톤다노(Tondano) 유배 시절의 께아이 모조
<http://jembatan-pengetahuan.blogspot.com>

시도에도 목숨을 다해 저항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도발과 공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철철 흘러 넘치는 외침이었죠.

네덜란드군의 공격 반대방향인 북쪽으로 빠져나간 디포네고로 일행은 네덜란드의 포위망을 벗어나 일단 칼리사카(Kalisaka)에 도착했습니다. 자바 전쟁의 첫 전투라 할 만한 뜨갈레조 전투는 결코 디포네고로 왕자의 승리라고는 할 수 없는 결과였지만 이 사건 소식이 자바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네덜란드에 대한 공개적 저항을 시작한 왕자의 행동은 백성들의 연민과 응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추종자들이 칼리사카로 몰려 들었습니다.

한편 왕족들과 귀족들도 디포네고로 왕자에 대한 지지를 밝히거나 직접 병력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수라카르타의 빠꾸부워노 6세도 은밀한 지지를 보냈고 가갈탄(Gagartan)군의 영주 라덴 뚜먼궁 뿌라위로디자야(Raden Tumenggung Prawirodijaya), 아디네고로 왕자(pangeran Adinegoro), 빠눌라르 왕자(Pangeran Panular), 아디위노토 수리요디뿌로(Adiwinoto Suryodipuro), 룡고 왕자(Pangeran Ronggo), 수렝로고 왕자(Pangeran Surenglogo) 등 내로라하는 왕족들과 귀족들도 디포네고로 왕자 편에 섰습니다. 자바 전쟁에서 디포네고로가 승기를 잡던 시기에 궁성의 왕자 29명 중 15명, 족자 지역 태수와 군수들 88명 중 41명이 그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지했으므로 실제로 족자 술탄국의 왕가와 귀족 절반이 디포네고로 왕자의 지휘를 받으며 네덜란드군과 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자 전하! 문안 드리옵니다.”

이슬람 학자와 뿌산트렌 학생 복장을 한 수백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칼리사카에 나타난 한 남자가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슬림 아니냐? 정말 반갑구나!”

오래 전 뜨갈레조에서 만났던 천재소년 무슬림 모하마드 칼리파는 수라카르타에서 저명한 이슬람 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올라마 끼아이 모조(Kyai Mojo)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얻어 수라카르타 수수후난 빠꾸부워노 6세의 측근이 되었고 일부 까누라간(Ilmu Kanuragan)이라는 신비로운 능력을 익혀 전장에서 목소리 하나로 적들을 격파하는, 일견 사자후(獅子吼)와 같은 공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라카르타는 물론, 족자 술탄국 구석구석과 망꾸느가란 봉국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망꾸부미 왕자는 크게 반가워하며 그를 열싸안았습니다. 그의 합류는 전력에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빠꾸부워노 6세의 측근인 그의 존재는 네덜란드의 압박 속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던 수라카르타도 사실은 디포네고로의 저항을 내심 지지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끼아이 모조는 이후 전장에서 디포네고로군의 전략사령관이자 이슬람 큰 선생으로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족자의 귀족들과 일반 민중들이 끝없이 밀려들어 디포네고로의 휘하에 들었으므로 칼리사카에서는 더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 뜨갈레조를 나온지 불과 며칠 만에 왕자는 더 넓은 곳을 찾아 옮겨가야 했습니다. 가족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쿨론쁘로고군(Kabupaten Kulonprogo) 텍소 마을(Desa Dekso)에 도달한 디포네고로는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꺾어 반뜰시(Kota Bantul)로부터 서쪽으로 5킬로미터, 족자에서 남서쪽으로 약 9킬로미터쯤 떨어진 고아 슬라롱(Goa Selarong)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들 중 그를 따라 나선 라덴 आयु 렛나닝시(Raden Ayu Retnaningsih)와 하녀들은 고아 슬라롱



고아 슬라롱

<https://gudeg.net> | <https://rentalmobilyogyakarta.net>

서쪽지역에 묵었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먼저 일찍 죽거나 전장에 따라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라텐 아우 렛나닝시만이 자바 전쟁 초기부터 전쟁 마지막 날까지 디포네고로의 결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곳에 군대의 본진을 설치하고 조요멍골로(Joyomenggolo), 바후유다 (Bahuyuda), 항고위크로모(Hanggowikromo) 같은 지휘관들을 통해 군대 체계를 편성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족자 남쪽 게게르 마을(Desa Geger)과 끼둘(Kidul)산 지역, 빠라칸 마을(Desa Parakan), 꺼두(Kedu) 지역의 끄방아룸 마을(desa Kembangarum) 등 여러 지역에 화약공장들을 비밀리에 세우고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자바 전쟁은 1825년부터 1830년까지 5년간 자바땅 대부분을 휩쓸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디포네고로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이 전쟁은 네덜란드가 동인도에서 예전엔 단 한번도 겪어본 적 없던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중부 자바 전부와 동부 자바 일부, 그리고 자바 북부해안지역 대부분을 포함한 자바섬 거의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항전에 식민정부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열하고도 연속적인 전투로 양쪽 모두 엄청난 인적, 물적피해를 감수해야 했는데 네덜란드측 문헌에 따르면 이 전쟁 중 약 20만 명 정도의 자바인 민간인들과 7

천 명의 디포네고로군 장병들이 사망했고 네덜란드군도 8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게릴라 전술에 능했고 매복공격으로 네덜란드군 병참로를 속속 차단했는데 정작 네덜란드군은 일관성 있는 전략이나 제대로 된 응전의 결기도 없었으므로 전쟁 초반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자바전쟁은 자바의 구시대와 근대, 자바 역사와 인도네시아 역사를 나누는 경계선이라고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전비와 군사, 경제적 역량을 완전히 바닥낼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된 이 전쟁이 고작 디포네고로 왕자의 조상 묘역을 파헤치려는 네덜란드와의 말뚝 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그 배경은 분명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일 터이죠.

다음 호에 계속



자바 전쟁

www.youtube.com

한방

韓方

지난 호에 이어

생활 한의학 I

한국인이라면 음양오행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태극기 중앙에 그려진 음양의 모양은 옛 선조들이 음양이론과 얼마나 친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음양에 대해 설명하자면,

음: 만져지는 것, 무거운 것, 여성, 어둠, 아래 등

양: 만져지지 않는 것, 가벼운 것, 남성, 빛, 위 등

음양은 언뜻 보면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존하며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의 공존

우선 세상은 모든 물체나 사건, 현상에 음양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밝음을 예로 들면 태양이 있어서 전구를 켜지 않고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작용입니다. 양은 빛이고 더운 성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운 날씨를 피해 그늘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음의 작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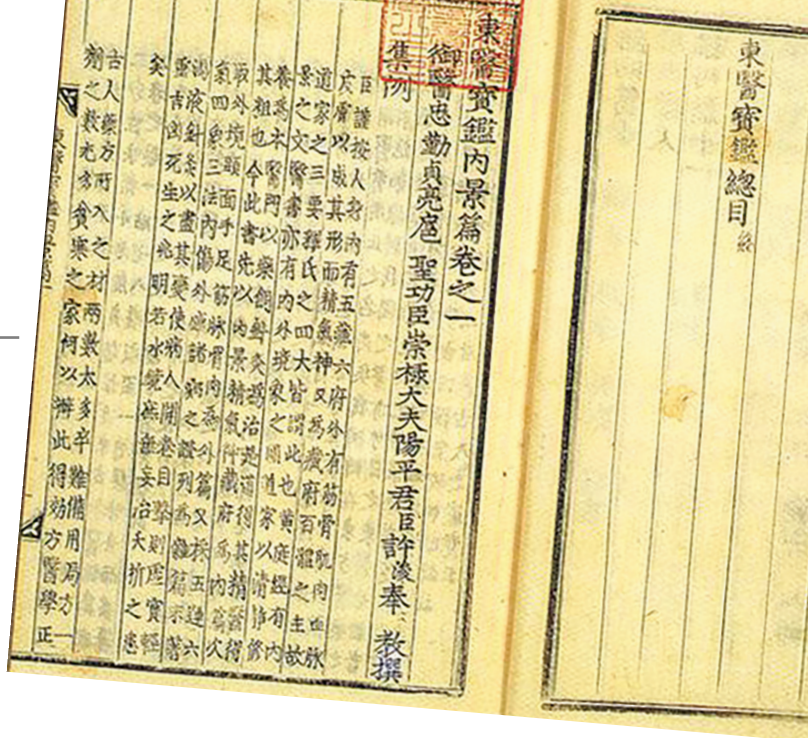
이때 그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인데요, 빛이 있어서 나무의 한 쪽을 비추면 반대편은 그림자가 생기고 이것을 우리는 그늘(어둠)이라 부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예로 들면 어둡고 캄캄한 공간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냥불 하나도 아주 환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햇빛이 짙은 대낮에 성냥불을 밝힌들 성냥불이 밝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서 밝음의 존재를 알게 해 주고, 밝음이 강할수록 드러지는 그림자도 어두운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과 양은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위기(음)속에 기회(양)가 있다

“양속에 음이 있다” “음속에 양이 있다” 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과 가정이 파탄 났었습니다.(음)

그런 와중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으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양)

과거와 현재까지 발생한 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지만(음) 그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본 나라와 기업들도 있습니다(양)

음양의 공존에서 배울 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음)이 생기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 좋은 일(양)이 생기거나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쳐서 팔이 부러져 수술을 했다고 하면, 부모들은 놀래고 병원 왔다갔다하며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금전도 나가고, 학업에도 지장이 있다는 생각에 속이 썩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음)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아이가 더 조심스러움을 배우고 차분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가까워졌다면 이 일을 나쁜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양)

또 다른 예로 새로 구입한 정장을 입고 첫 출근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의 부주위로 음료를 쏟는 바람에 첫 출근을 망쳤다고 절망하고 있는데(음) 손수건을 건네며 괜찮으세요? 라며 상냥한 목소리가 들리고 이내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빛이 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은 환희로 바뀌고 망쳤다고 생각한 첫 출근은 내 인생에서 하늘이 주신 기회의 날로 기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호작용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아 길과 흙이 공존한다고 바로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원인(음)과 결과(양)의 일이 완성되어, 상관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기만성형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시절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서 한순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음)

돈을 벌어 본적도, 돈을 아껴 써 본적도 없었기에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공부하던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틈틈이 연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가난의 서러움과 사회에서 부딪치고 깨지면서 경험한 감정과 지식들은 청년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이해도와 통찰력을 높여주었고, 5년이 지나 마침내 혼자 힘으로 전셋집을 구한 날, 계획대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르바이트와 유튜브 활동을 겸비해 나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행복한 유년시절의 기억과 가난과 시련의 시간들 그리고 좌절과 극복의 기억들이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다가와, 구독자는 금세 10만이 되었고, 틈틈이 브이로그와 실시간 채팅방에서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1년 만에 5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양)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동안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면서 깊은 공감능력과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구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누리고 있던 무엇인가를 뺏기거나 놓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보면 그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배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양의 공존에서 배울 부분입니다. 흥하다고(음) 생각되는 일이 길(양)하게 될 수도 있고 길하다고(양) 생각되는 일이 흥(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양)이라고 칭하고 혈액이 흐르는 통로를 혈관(음)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오장육부가 위치하고 있는 몸통부위를 위(양)와 아래(음)으로 나누어 상초와 하초라고 부릅니다. 상초와 하초는 열기와 냉기가 순환하여(수승하강, 水升火降-차가운 수기(음)는 올라가고 뜨거운 화기(양)는 내려가서 순환하며 인체의 생리기능의 균형을 맞춘다는 개념) 상초와 하초 모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보는데, 상초는 뜨겁고 하초는 차가운 것을 상열하한(上熱下寒)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불면증, 피로감, 정서불안,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여성의 경우 자궁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두한족열(頭寒足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양)은 시원하게, 발(음)은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로 건강한 사람의 상태를 지칭합니다.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발이 차가운 사람은 건강상의 이상신호로 보게 됩니다.

음양의 상호작용

손을 쥐었다 펴고 팔다리를 들었다 올릴 때 한쪽 근육은 수축(음) 되고 다른 한쪽 근육은 이완(양) 됩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이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낼 때도 마찬가지로 폐에서 공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소리를 내보낼 때 폐 위쪽에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양) 폐 아래쪽으로는 압력이(음) 가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래로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면서(음)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아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것(양)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음양은 공존하며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산을 올라갔으니(양) 내려온다(음) 반대로 산을 내려가니(음) 다시 올라 온다(양)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굴곡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양의 이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로 음양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사람들은 꼭 순리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부부를 예로 들면 남편(양)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음)는 자연스럽게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은 열심히 하고, 다른 한쪽은 가만히 있다면 이것은 상호작용이 원만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곧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가정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작용은 인체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의 현상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한쪽이 계속 희생하는 것도, 특정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 하지 않는 것도 모두 올바른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타 음양의 성질

음은 음끼리 모이기도 하고 양은 양끼리 모이는 성질이 있는가 하면, 음(-)과 양(+)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음과 양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긴 종이에 핑크색(오른쪽)과 파랑색(왼쪽)을 반반씩 색칠을 하고, 오른쪽 핑크색을 양이라고 하고 왼쪽 파랑색을 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이를 반으로 잘라 핑크색만 남겨 두면 핑크색 전체는 양이지만 핑크색을 다시 반으로 나누면 오른쪽 핑크색 쪽은 양이 되고 왼쪽 핑크색 쪽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멈추거나 고정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삶에 있어 나의 원칙, 철칙, 신념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의 유산물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들, 지나간 유행, 관습,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현재 시대와 사람들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00세 시대, 투잡 쓰리잡시대, 평생교육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이 옳고(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음)” 포인트를 찾지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공부 해봐야 하는 것이고(양), 남의 말도 들어보고(양), 멘토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도(양), 필요한 것입니다.

•음양은 서로 전환 됩니다.

허허벌판에 나무 한그루가 서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면(양) 나무는 서쪽으로 그늘이(음) 질 것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해가 서쪽으로 지려고(양) 하면, 나무의 그늘은 동쪽으로 질 것(음)입니다.

이렇듯 같은 자리가 시간이나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것처럼 세상사 또한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곳이 더러워지고, 빈곳이 채워지고, 채워진 곳이 비어지는 등 끊임없이 변화(전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음) 이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양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플러스(양)과 마이너스(음)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붙으려고(가까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늘은 양, 땅은 음이라고 합니다.

땅이 음이니, 땅과 마주한 발은 양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하늘은 양이니 머리는 음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한족열과 일맥상통하는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애기들이 태어나기 전(양)에 머리가 땅(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자신의 기운이 돌면서 서서히 음과 양이 변화하여 지구에 살기 적합하게 음과 양의 기운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나마 변화무쌍한 음양의 이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자, 과학자, 역술가, 의술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음양을 연구하여 자신의 공부에 접목하여 발전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양이론은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韓方

2023 제 6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신인 작가의 등용문, 제6회 적도 문학상 시상식

한국문인협회(이하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가 주최하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한인 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문예총), 한인 포스트, PT CIPTA ORION METAL이 후원하는 제6회 적도 문학상 시상식이 8월 31일, 한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김준규 회장은 “인도네시아 문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문학을 통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모쪼록 문학인으로서 자부심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문협 모임과 더불어 자습의 노력을 통해 작품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개최를 선언했다.

김주명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협회 소개 및 지난 일 년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시상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다. 중요한 약속을 미루고 참석했다는 박재한 한인회장은 특히 한인 이주 역사가 104년이 되는 올해,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다소 미비한 문학 부문에서의 역사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문협에 감사를 전했다. 문예총 김혜정 수석부회장은 문학 활동을 시작한 수상자분들께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더욱 신나는



를 바라다며 수상자들의 행운을 빌었다.

시상자로는 오순옥 문예총 전시 부회장, 이영미 아동문학가, 박재한 한인회장, 이태복 시인, 김준규 문협 회장님이 수고해 주셨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및 꽃다발이 수여됐다.

고아라(수필 우수상) 씨는 오늘의 수상이 인도네시아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며 열심히 살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혈혈단신 이곳에 와 적극적인 마음을 글로 적으며 외로움을 해소했다는 박선민(수필 우수상) 씨는 ‘글쓰기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창구’라는 소감을 남겼다.

특히 삼익 악기에서 증정한 통기타를 받게 된 이미경(수필 최우수상) 씨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노트에 작은 연습들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올해 시상식을 특별하게 만든 레스토랑 다올 사장님의 깜짝 축하 무대가 있었다.

수상작들은 한인 포스트와 자카르타 경제신문에서 볼 수 있으며 11월에 발간되는 동인지 9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제공:한국문인협회 인니지부)



문학기행으로의 발돋움을 하라는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문학 하는 사람은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김우재 시인은 다양한 문학인들만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더 많이 행복하시기

가장 이상적인 드라이버 티 높이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드라이버는 쇼, 퍼터는 돈이다’ 라는 골프 격언이 있다.

호쾌한 드라이버 샷으로 동반자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퍼트 실력이 중요하다는 골퍼들의 경험치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호쾌한 스윙으로 장타를 날리는 티 샷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첫 홀부터 티 샷이 잘 맞으면 샷에 자신감이 생기고, 동반자들의 샷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티 샷의 실수는 아마추어 골퍼뿐만 아니라 투어 프로들에게도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티 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파(par)이상의 좋은 스코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화무쌍한 바람, 다양한 형태의 골프 코스에서 호쾌한 장타도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한 골프를 하려면 페어웨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골프에서 티 샷은 유일하게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하는 샷인데, 이는 잔디위의 공을 치는 것보다 저항을 줄여주고, 플레이어가 원하는 방향성, 구질 그리고 탄도를 가진 샷을 가능하게 한다. 공을 티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골프가 조금 더 쉬워지고, 복잡하게 설계된 어려운 코스라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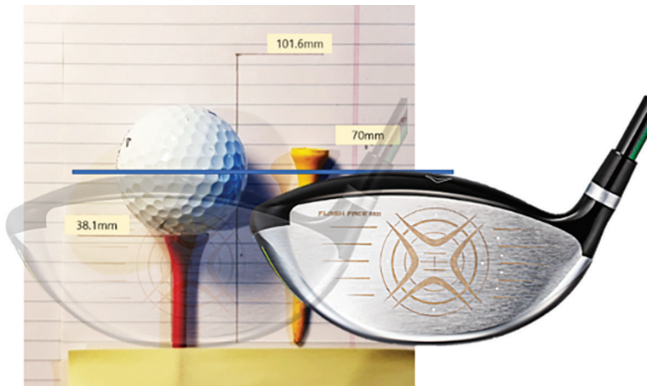
• 골프 티의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가장 이상적인 드라이버 티 높이를 1.5인치(38.1mm)로 본다.”

[미국 100대 교습가]

골프 티는 길이에 따라 롱 티와 숏 티로 구분되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표준 롱 티의 길이는 대략 70~80mm이다. 70~80mm 길이의 티를 20~32mm 정

도 땅속에 꽂으면 이상적인 티 높이가 된다. 골프 파우치에서 티를 꺼내 확인해 보면 아마도 다양한 길이의 티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나무 티의 길이는 70mm였다. 평소 티 샷을 할 때 티가 조금 짧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실제로는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였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이상적인 골프 티 높이(38.1mm)일 때 골프공은 드라이버 헤드 페이스 상단 라인에 반쯤 걸쳐져야 한다. 이 높이는 미국의 전문 교습가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드라이버 티 높이라고 한다. 실제 라운드를 하면서 티 높이를 측정해보면 38.1mm는 생각보다 훨씬 낮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잔디가 있을 경우에는 더 낮아 보일 수 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티를 조금 높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평소 라운드를 할 때 동반자들에게 티의 높이에 대해 물어보면, 티를 조금 더 높게 사용할 때 샷이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도 골프를 배우는 시기에 동반자들이 티를 높게 꽂으면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을 해서 슬라이스를 내지 않기 위해 티를 더 높게 사용했던 적이 있다.

“드라이버 스윙에서 헤드 스피드와 포스트각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티의 높이가 2인치(약 50mm)일 때 ‘어택 앵글’이 가장 커져 비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이상적인 티 높이(38.1mm)보다 약 +11.9mm가 더 높다. 이때 공은 드라이버 페이스면 가운데보다 약간 위쪽에 맞아야 백 스핀이 발생하지 않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또한 드라이버 헤드가 임팩트 전에 지면을 스치듯 저점을 지나 상향 타격으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 평소 라운드를 하면서 뒤바람이 불 때 티를 조금 높게 사용하라는 동반자의 말은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뽕샷이 날 수 있으니 티 높이는 50mm를 넘지 않도록 하자.

투어 프로들도 ‘평균보다 티를 높이면 스핀이 적은 높은 탄도로 비거리를 더 낼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선수들이 공식 대회에서 사용하는 티의 길이는 4인치(101.6mm)를 넘지 못한다.’ [미국골프협회(USGA), 영국왕립골프협회(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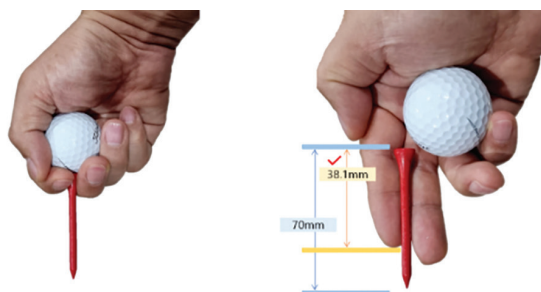


또한 대부분의 투어 프로들은 티를 높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페이드 구질의 티 샷으로 페어웨이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맞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티를 더 낮게 꽂고 낮은 탄도의 샷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적으로도 골프를 처음 배울 때 보다 지금은 티 높이를 낮게 하는 편이다. 이는 티 높이를 낮추었을 때 임팩트가 좋아지고 페어웨이를 지키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뽕샷’ 이 자주 발생한다면 티 높이를 반드시 점검해보자.

투어 프로들은 티에 구질이나 방향성 등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티가 샷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드라이버 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70mm 표준 사이즈 롱 티를 사용하는 경우, 티를 땅에 꽂은 후 검지를 펴서 두 번째 마디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상적인 높이가 된다. 다만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티높이를 찾아야 한다. 골프 티의 높이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티를 꽂은 후 드라이버 헤드를 나란히 옆에 두고 높이를 확



인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기존 티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주는 티도 판매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티를 꽂은 후 드라이버 헤드를 옆에 놓아보고 티 높이를 가늠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검지 손가락으로 먼저 티 높이를 확인한 후 드라이버 헤드를 옆에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 드로우와 페이드 구질을 만드는 티 높이는?

골프는 주어진 자연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골프 정신이자 본질이라는 얘기가 있다. 코스의 특성과 바람의 방향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샷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추어 골퍼는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이나 좁은 페어웨이, 해저드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평소처럼 좋은 샷을 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18홀 동안 일관된 스윙 궤도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을 이겨내며 멋진 드로우나 페이드 샷을 하고 싶다면 티 높이를 조절해 보자. **드로우와 페이드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는 아마추어 골퍼들도 어느 정도 원하는 구질과 탄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티 높이가 구질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스윙 궤도와 라이각에 영향을 준다.**

- 티가 높다: 업라이트 한 라이각, 어퍼블로

- 티가 낮다: 플랫 한 라이각, 다운블로

티를 평소보다 높게 쏘으면 드로우 구질의 티 샷을 할 수 있게 되고, 평소보다 낮게 쏘으면 플랫한 라이각으로 인해 페이드 구질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상적인 티 높이, 상황에 따라 티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티의 재질도 중요하다. 투어 프로들은 모두 나무 티를 사용하는 데, 그 이유는 나무 티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티보다 저항이 적고, 방향성에 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나무 티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티를 사용할 때 보다 비거리가 2~8야드가 더 나간다는 테스트 결과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나무 티를 사용하는 편이다. 비록 쉽게 부러지고, 티샷 후 찾기 어려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을 한다. 공연히 죄 없는 캐디에게 불평을 하기보다는 즐거운 라운드를 위해 나무 티 사용을 추천한다. 참고로 나무란짜마야 골프장에서는 카트에 나무 티가 준비되어 있으며, 구농 굴리스 프로 샵에서는 나무 티 한 움큼을 80.000루피아에 구입할 수 있다.

이제 이상적인 티 높이와 드로우, 페이드 구질을 구사할 수 있는 티 높이를 알게 되었으니, 다음 라운드에서는 더 자신 있게 티 샷을 시도해보자.

개복숭아



하연수(한국문협 인내지부 감사)

이른 아침 묘소 가는 길, 개울가에 섰다. 꽃상여 건너지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멈추고 했던 곳이다. 다시 찾은 그 개울가, 달력에는 봄이 와도 산천은 겨울 안개비에 떨고 있다. 산자락 진달래 꽃잎들 모두 그날처럼 축축 처져 있는데, 물길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개복숭아들은 목을 시퍼렇게 세우고 있다. 봄비 같지 않은 겨울 안개비에 버티고 있는 개복숭아들이 처연하다.

돌아오는 길, 열차 뒤로 화전놀이 분홍치마 저고리들이 빙글빙글 돌고 사라지고 또 나타난다. 복숭아꽃 치맛자락 돌고 도는 무도회장이다. 옆자리 청년은 저 무도회 복숭아꽃이 되고 싶어서 남으로 왔다고 한다. 개복숭아 꽃피면 두만강도 순해지는 시기란다. 그때를 기다리며 청년은 꽃 소식이 궁금해 하루에도 수십 번 넷가로 나갔다 한다. 개복숭아꽃은 나오지 않고, 마음은 토담 아래 개미들처럼 분주하게 오고 가지만 하더라.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개울을 덮고 버티고 있던 얼음들 여기저기에 숨구멍이 터지자, 청년의 숨구멍도 열리고, 개복숭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꽃봉오리들을 내놓기 시작하더라. 서둘러 집을 나섰고, 달이 없는 밤, 여동생과 어머니 손을 잡고 두만강에 들어섰단다.

남쪽 나라에 가면 복숭아꽃이 된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단다. 그 믿음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두만강에 들어서게 했고, 뱃속을 파고드는 차갑고 어두운 물에서도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었고, 이 강만 건너게 해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늘에게 약속하며 물을 건넜다고 한다.

하늘은 청년 가족을 두만강 건너 이국땅에 발을 올리게 해주더라고 했다. 고향 땅 떠나야 하는 청년의 간절한 기도와 약속이 하늘에 닿았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아들에게 복숭아꽃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단다. 어머니의 믿음은 남쪽에서 복숭아꽃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물을 건너는 아들을 향한 믿음이었으리라. 어머니는 남에서 살아보니 집이 있고, 입을 것 있고, 먹을 것이 있어 만족스럽다 하는데, 아들은 복숭아꽃이 아닌 개복숭아꽃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아 절망하고 있단다.

인구피라미드 정점 또는 그 근처는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서로 경쟁하는 곳이다. 그곳으로 보통 수준 사람들까지도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물려가면 불에 타 버릴 곳인데도 보통 사람들까지 유행처럼 물려간다. 사회, 가장, 학교는 방조하고 있다. 이 사회는 그곳이 최고의 성공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곳이라고 부추긴다.



보통 젊은이들까지도 사회 성공 기준과 주변 시선, 분위기에 속아 이를 수 없는 꿈에 매달려 있다. 그 허황한 꿈에 취해 돈, 힘,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 한 번의 성공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꿈을 이루는 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도전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다는 말을 하는 부모도 있었다. 그것은 자식의 능력을 바로 보지 못했던 바보라는 말일 뿐이다.

머리가 희끗한 먼 친척 K는 늙은 고시 준비생이 되었다. K의 아버지 친구들은 K가 검사가 될 상을 가진 학생이라고 응원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들이 검사가 된 듯 좋아했던 사람이라 한다. 사법시험 통과하면 돈, 권력, 명예 모두를 가지게 되었고 가문에 검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그 기대는 K에게 의무로 자리 잡았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전을 했다고 한다. 그 반복이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고, 지금은 고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일 이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사법시험 준비 덕분에 법전은 줄줄 외운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래도 K는 아직 제 밥벌이도 못 하는 늙은 고시생일 뿐이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그 이룰 수 없는 꿈에 K는 시간, 돈 그리고 힘을 모두 소비해 버렸다. K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K의 아버지는 K에게 장사를 시켜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자식은 부모를 닮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K의 타고난 능력 속에는 아버지의 타고난 장사 능력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훌륭한 상인으로 성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K의 행복은 K의 아버지가 빼앗아 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 스스로 돕는 자는 성공 습관이 붙은 사람이고,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성공 습관이 붙은 사람에게 하늘이 운을 준다는 말이다. 즉, 성공 습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운을 준다는 말이다. 하늘이 운을 주는 기준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운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한다는 의미다. 야박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하늘의 섭리다. 시린 봄에 시퍼런 목을 세우고, 안개비에 버티고 서있는 개복숭아들도 성공 습관을 쌓아 하늘 운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완벽하지 않아도 특별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질 바슐레 글·그림 | 나선희 옮김

책빛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질 바슐레 글/그림, 나선희 옮김, 32쪽, 책빛, 2022

Il n'y a pas d'autruches dans les contes de fees (2008)

어릴 때 읽던 동화는 아름답고 완벽했다. 공주도, 왕자도, 그들의 해피엔딩까지도. 하지만 나이가 들며 의문이 생겼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인물들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더욱 그랬다.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되고 싶었던 '나'는 완전함과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결점투성이의 인간이었다. 그 세상에 '나'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담아 놓은 그림책이 있다. 질 바슐레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이다.



이러한 요소는 유머 코드로 작용함과 동시에, 독자와 작품 간 깊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을 끌어낸다. 작가는 기존 이야기의 시공간을 해체하여 독자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게 하고, 원작에 온전히 몰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만든다. 질 바슐레의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 독창적으로 풀어낸 글과 그림의 조화는 읽는 이마다 각자의 스키마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완전한 타조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다.



타조는 침대 밖으로 발을 내민 채 코를 골며 자요.



타조는 숲에 갈 것이지만 빵집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결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타조는 새지만 날지도 못하고 예쁘게 지저귀지도 못한다. 성질도 고약하고 영리하지 못한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는 주인공임을,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통해 보여준다. 공주나 왕자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행복함을 말하는 마지막 장면은 독자들이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 가지 더. 장면마다 자세히 봐야 보이는 - 매번 모습을 달리하는 버섯, 사라진 난쟁이, 구석에 있는 포스터, 스웨덴 왕궁 문장 등 - 작가의 작고 위트 넘치는 선물도 꼭 찾아보길 바란다.

떠오르는 아세안, 그 중심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다

고려대학교 사학과/정치외교학과 20학번 김태희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최상위급 관계 격상’, ‘美 빅 테크 동남아 공략 속도... 차세대 데이터허브 확보 전쟁’, ‘현대차 태국 시장 본격 진출... 아세안 패권 놓고 韓中日 격돌’. 전 세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아세안이 주목받고 있다. ‘CMK 아세안 스쿨’은 이러한 아세안/동남아 대세 시대 속에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KUAC)가 주관하는 동남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치외교, 경제, 문화, 역사, 환경, 기술협력,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한-아세안 관계를 이어갈 인재를 육성 및 지원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도에 출발하여 올해로 2기를 맞았다. ‘동남아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올 5월 전국 10개의 대학에서 최종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은 올 7월 2주간 고려대학교에서 국내 최고 동남아 강의진으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중강 직후인 7월 21일부터 10박 12일간 하노이-방콕-자카르타 현지를 방문했다. 현지 탐방 일정 이후 귀국한 20명의 학생들은 현재 4인 1조로 구성된 5개의 팀으로 나뉘어 지난 국내 강의와 현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관련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이슈에 대해 올 11월 최종 팀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목표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CMK 아세안스쿨은 내년도에 해당 과정을 우수하게 마친 학생들 중 일부에게 아세안 현지의 여러 기관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인턴십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데, 이렇듯 CMK 아세안 스쿨은 단연 동남아와 아세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탐방 일정은 아주 꼼꼼하게 짜여 있었다. 각 국가에선 대사관, UN과 ASEAN 등의 국제기구, 싱크탱크, 대학교, 주요 문화 유적지에 방문했으며, 방문한 기관들에서는 대사님, 기관장님, 교수님, 연구진분들 등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근무 내용과 현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세 나라를 방문하는 10박 12일 일정 중 5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인도네시아에서 역시 ASEAN 사무국, 주아세안 및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표부, ERIA, CSIS, Habibie Center, 한인니문화연구원, KOCHAM, 두타 갤러리, 꼬따뚜아 등을 방문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역사, 문화, 한-인니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을 얻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인구수 기준 제3위의 민주주의 국가, 판차실라, 17000개 이상의 섬 등.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방문해 본 경험이 없으니, 머릿속에 수업 시간에 배운 인도네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뒤섞여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감을 잡을 수 없어 궁금하면서도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자카르타에서 직접 마주해본 인도네시아에선 수업에선 알 수 없었던, 한 명의 개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도네시아가 있었다. 친절하고 순박한 사람들, 버스 창밖에는 마치 영화 주토피아를 보는 것 같이 펼쳐지는 각기 다르게 생긴 건물들과 그 사이의 열대성 기후의 나무들, 한국 사람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정말 맛있는 음식 등. 한국인으로서 직접 경험한 인도네시아가 호감이고 즐거우니, 미래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 역시 가지게 됐다.

전체 일정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첫날과 그 이튿날에는 꼬망에 위치한 두타 갤러리와 꼬따뚜아에 방문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깊었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 이 과정에서 도슨트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셔서 더욱 많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자연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 듯한 두타 갤러리에서는 식민통치 시절 당시 인도네시아 방문을 홍보하기 위해 네덜란드 화가에 의해 그려진 인도네시아 풍경화들과, 당시 식민정부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어 작품에 이름조차 남길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 화가들의 대조적인 그림들을 감상하며 피식민지로서의 공감이크게 형성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음날 방문한 꼬따뚜아의 국립 인도네시아 박물관에서는 과거는 과거로 둔 채로 식민 지배의 역사 역시 자신들의 역사로 인정하고 새롭게 네덜란

드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로 나아가는 그들의 용기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식민 지배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접근방법이 일종의 놀라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공부할수록 한국인에게 새로운 귀감과 영감을 주는 국가임이 분명했다.

ASEAN 사무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중심축 국가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ASEAN’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그 미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아세안’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관계자분께서 해주신 ‘나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보다 나의 아들이 더 아세안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는 답변에서 앞으로의 ASEAN 공동체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포부가 느껴져서 기억에 남는다.

인도네시아 일정 중 일부를 함께 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네샤’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자네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관심이 많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조별 활동 시간에 조원들과 함께 꼬따뚜아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에 대해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네사라는 한 명의 친구와, 또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많이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네사의 멋진 한국어 실력 덕분에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함께 식사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서로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도 조원들과 함께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CMK 아세안 스쿨을 통해 아세안과 동남아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얻고 있다. 현지 탐방에서 얻은 배움들과 인연들,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인상들과 직관들은 미래의 한국과 동남아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활약하고 싶은 한 명의 학생으로서 굉장히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능성을 지닌 국가인지 역시 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한번 방문하면 자바의 여신에 의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데, 벌써부터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은 걸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무사히 지금까지의 일정들과 현지 탐방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KUAC), 일정 내내 우리를 잘 인솔해 주셨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CMK 아세안 스쿨 2기 학생들과 조원들,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인니문화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지난 경험들이, 또 앞으로 있을 배움들이 한국과 아세안,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히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능성을 지닌 국가인지 역시 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한번 방문하면 자바의 여신에 의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데, 벌써부터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은 걸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무사히 지금까지의 일정들과 현지 탐방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KUAC), 일정 내내 우리를 잘 인솔해 주셨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CMK 아세안 스쿨 2기 학생들과 조원들,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인니문화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지난 경험들이, 또 앞으로 있을 배움들이 한국과 아세안,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의 삶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로 오면 우리 국민에서 외국인이 되고, 다수자에서 소수자가 된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영주하려는 한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의 한국인들과 비교해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하려는 비율은 크게 낮다.

한국 해외 진출의 개척자이자 한국을 도운 재외동포라는 점은 인도네시아 한인의 큰 자부심이다. 인도네시아는 민간인이 한국 정부보다 먼저 진출한 국가로, 한인 사업가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한국 대사관 부지를 매입해 준 것을 포함해 진출 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정부와 대사관을 지원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는 종목별로 동포 응원단을 꾸려서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한식을 대접하고 부족한 물품을 구입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는 일본군 포로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왔다가 살고 있던 김만수와 유형배가 국교도 없던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봉사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취업과 사업 등 경제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왔다. 목재, 건설, 신발, 봉제, 전자, 중화학공업, 유통 등 산업을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업과 인허가 관련 컨설팅업체, 한식당과 여행사 등이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한국인의 활동 업종이 다양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해 한국계 기업은 2천 300여 개로 추산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근면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남한과 북한이 만나는 완충지대

이다. 인도네시아는 남북 대사관이 동시에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때 남북한 공동 입장, 여자농구·카누·조정 등 일부 종목이지만 단일팀이 구성됐고, 현지 남북한 동포들이 공동응원도 했다. 개막식에는 이낙연 총리와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은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반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한국인이 쇼펍몰에서 마주친 북한 사람과 인사할 수 있고 북한 식당에 갈 수 있는 곳이 자카르타이다.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생활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기도 하다.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영어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이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영어로 생활할 수 있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과정(BIPA)에는 20년 이상 한국인 학생 비중이 60~70%에 이를 정도로,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어를 적극적으로 배운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종교단체, 동문회, 향우회, 문화·예술단체 등 활동을 통해 다른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달랬고, 한국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2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는 한국인 이주 초기인 1976년에 설립돼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작했다. 선교 활동의 일환이지만 선교사들은 현지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인도네시아 한국인들은 한국문화와 한식을 전파

하는 디딤돌이었다. 한식을 먹어야 하는 한국인들은 한식당의 든든한 소비자였고, 인도네시아인에게 한식을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 덕분에 2000년대 중반, 자카르타에 한식당 수가 100개를 넘겼다. 지금처럼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진출 초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한국무용을 공연하고 다도 시범을 보이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화가 교류전을 시작한 사람들도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들이다. 인도네시아 소수 종족 가운데 하나인 짜아짜아족이 한글을 문자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도 앞서 한국어와 한글을 소개하는 활동이 있었다.

한편으로 한류의 전파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외교, 비즈니스, 문화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현지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고 생활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이라고, 북한 사람이 아니고 남한 사람이라고 강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도네시아인이 먼저 한국인이냐고 물어주고 반가워해 준다. 현지인들이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을 소비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제품을 구입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정부 단체와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한국문화 행사는 인도네시아인만이 아니라 현지 한국인들의 삶에도 활력을 더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폭동과 테러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자연에 순응하며 서로 돕는 삶을 배웠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민주화 시위와 폭동 때 현장을 지킨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인과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어서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2004년 아체 쓰나미와 2019년 술라웨시섬 빨루 지역 지진 등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한국인들은 재해 현장에 들어가 긴급구호 활동을 벌였고, 자카르타 등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구호 성금과 물자를 모아서 보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직접 펼치는 구호 활동 외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러 단체의 지원을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곳에 도달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은 위기에는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폭동 때 한국인을 지켜준 사람들은 평소에 잘 지내던 이웃의 인도네시아인들이었고, 한국기업을 지켜준 사람들은 현지인 직원들이었다.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인을 닮아간다. 특히 자바 예절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한다. 이슬람이 주류인 공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교회 안에서는 뜨거워도 교회 밖에서는 차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어를 생활어로 말하고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 옷을 즐겨 입으면서 조용히 협상하는 모습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큰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해야 속이 후련해지는 모습. 모두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 안에 있는 모습이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은 앞으로도 바틱 옷을 입고 나시고랭을 먹으면서 조용히 인도네시아어로 말하다가, 저녁에는 소주에 삼겹살을 먹으며 큰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하는 삶을 오갈 것이다. 한국이 어려움을 겪으면 돈이든 독립운동이든 대 인도네시아 로비 등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가 어려움을 겪으면 역시 한국에서든 인도네시아에서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인인 사람도 있고 한국인인 사람도 있고, 여기에 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인이거나 싱가포르인의 정체성까지 더한 사람도 한인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한인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다. [끝]



너무도 예쁜 나의 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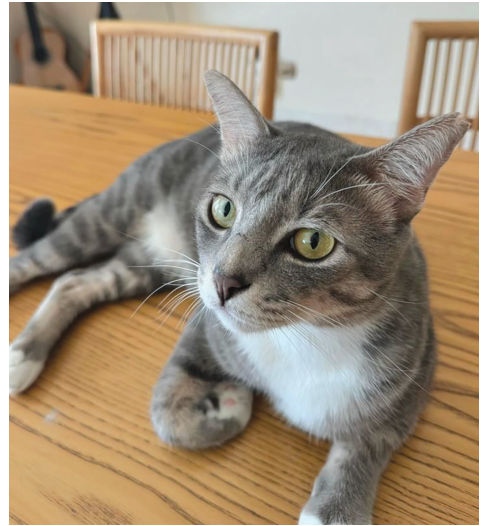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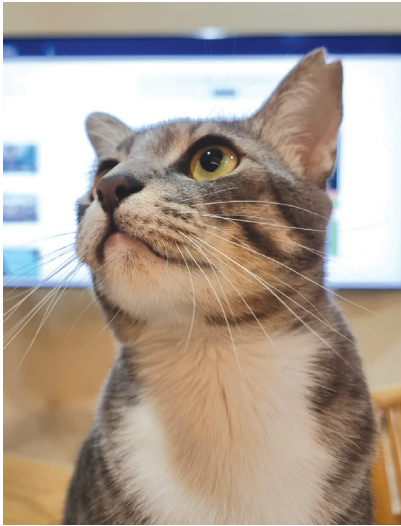


- 나이 : 4살 5개월(추정)
- 견종 : 인도네시아고양이
- 성격 : 시크하지만 다정함
- 우리 아기 자랑! 토비는 매우 똑똑해요. 아기때 부터 손! 하면 손을 주고 “앉아, 기다려!”를 잘 했어요. 지금도 특별 간식을 줄때 앉아서 기다리다가 “먹어”라고 하면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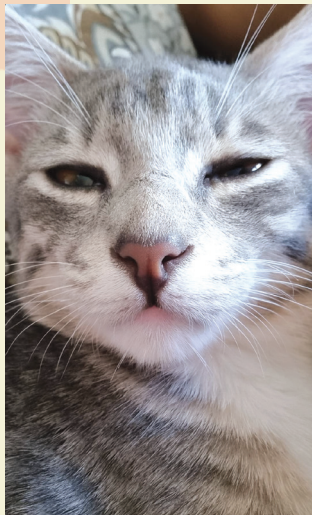
혼자 서랍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간식 서랍 앞에서는 앉아서 계속 저를 쳐다보며 혀를 낼름 거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토비는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하얀색 덧버섯을 신고, 검정색 아이라인이 그려진 토렛한 눈을 가졌어요.

- 집사 : 이소은(JIS, G5)





토비는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실수로 귀를 잘랐
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이 있나요! ㅠㅠ 길 고양이는 수술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귀를 자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토비를 볼 때마다 가끔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 전에는 더더더 예뻐거든요.



자원을 찾아 인도네시아로... 초창기(1968~1985년)

대한민국 최초 해외직접투자 '코데코'... 최초 해외공장 '미원'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산업 구조 근대화 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한다는 기치 아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을 시행한 데 이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을 한창 진행할 때, 인도네시아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9~1974년)을 막 시작했다.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기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법(1967/Law No.1 of 1967), 산림기본법(1967), 내국인투자법(1968), 산림개발권에 관한 법령(1970)을 순차적으로 제정했다. 이 무렵 한국은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원자재가 필요했다. 1960년 후반부터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국내 경제 개발에 필요한 목재·원유·석탄·사탕수수 등 원자재 확보에 나섰다. 1968년 코데코가 남부칼리만탄 지역의 원목개발을 위해 진출했고, 이듬해 코린도(당시 인니동화)도 동부칼리만탄 지역에 같은 업종에 진출했다.

코데코와 코린도 진출 이후 원목개발이 러시를 이룰 때,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경남교역, 한인흥업, 신흥목재, 유림사리 등 총 7개 업체가 있었지만, 1980년 초 원목 수출금지 조치 이후 기존의 한국계 원목개발 회사들 중 합판공장을 소유한 코린도와 코데코 정도의 기업들만이 원목개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산림 분야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코린도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1호 해외공장은 197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미원(현 대상, PT Miwon Indonesia)이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 미원의 과장급 한국인 영업사원들은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의 일본과 대만계 브랜드 아지노모도와 사사(Sasa)와의 경쟁을 피해서 섬과 산간지역을 찾아다니며 미원을 판매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단정한 복장을 한 한국인 중견사원들이 장터를 누비고 다닌 열정적인 모습은 유명한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미원은 판매 영업부터 시작해, 1975년 공장을 완공하고 이듬해부터 조미료 중간제품(DGA)의 생산에 돌입했으며, 1978년 본격적으로 사탕수수를 발효한 조미료(MSG) 생산을 시작했다.

1972~1985년 기간에는 자원확보형 투자 이외에도 건설과 무역업의 진출이 주류를 이뤘다. 1972년 12월 삼환기업이 수마트라 횡단고속도로 공사계약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했다. 1973년 6월에는 대림산업이 가스압축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현대건설이 자카르타와 남부 외곽 보고르(Bogor) 지역을 잇는 자고라위(Jagorawi)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종합상사로 한남무역(1971년 쌍용그룹 인수)이 1968년 진출하여 인도네시아에 시멘트를 수출하고 커피를 수입했다. 1973년 11월에는 한일시멘트가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에 철근 생산 공장인 한일자야(Hanil Jaya)를 설립했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원유 확보와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실로 1981년 5월에 코데코에너지와 국영 석유회사 빠르따미나(Pertamina) 간 서부 마두라(Madura Barat) 유전공동개발 사업이 승인되었고, 이로써 본격적인 유전개발이 시작되었다. 코데코에너지의 유전개발사업은 한국 최초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의 해외석유개발 사업으로, 한국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석유개발 사업을 해외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키데코(Kideco)는 1982년 삼탄이 인도네시아에 합작으로 설립한 유연탄 채굴 및 판매 회사다. 동부칼리만탄주 빠시르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이곳에서 생산하는 유연탄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판매했다. 최근 삼탄은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 키데코 보유 지분 49% 가운데 40%를 2대 주주인 인디카에너지(Indika Energy)에 넘겼다.

산림개발에서 지속 가능한 그린 비즈니스로

한국기업 해외진출사 첫 페이지를 장식한 코데코와 코린도는 한국의 해외 투자 역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 부문 진출은 기존의 원목 수입 방식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개발을 수행하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에서 한국의 목재산업은 1960년대 말 진출해 원목

개발을 시작으로 합판제조 등 1차 가공 방식의 산업 유형에서 최근에는 조림과 팜오일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기업으로 변신했다.

산업화가 태동하던 1960년대 한국 합판산업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열대 나왕목을 수입해 가공했다. 그런데 당시 가장 최대 원목 생산 국가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1970년 초부터 원목 수출 금지를 단행하자,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새로운 해외 원목 수급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거리가 멀지만 보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원목개발업체들은 단순히 수입선을 돌리는 것을 넘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직접 산림을 개발하는 직접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동남아시아의 원목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산림 부문에서 자원민족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인 만큼 해외기업이 생산한 원목을 단순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더 효율적이라는 목재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1968년 외국환 관리규정에 ‘대외투자’라는 장을 신설했으며, 자원개발, 원자재 확보, 수출 촉진 등의 부문에서 제한적이지만 해외투자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 9월 30일 발발한 공산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권력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 대통령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화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산업화의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자원인 광물과 원유, 산림 등 부문의 개발 계획



1962년 8월 수자르보 산림부장관 방문
(중앙 최계월 회장)

이 입안되기 시작했다. 당시 수하르토는 정권 수립에 기여한 측근들에게 삼림사업권(HPH) 분배했다. 자금과 기술력이 없던 그들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을 개발하고자 각종 법규정을 제정한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산림개발 산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궁핍한 국가경제 상황에서 코데코가 1968년 2월 최초로 한국 정부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하는 1차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남부칼리만탄주 바뚜리쥘 지역에 27만 헥타르의 임지를 단독투자 형태로 확보해 개발에 착수하면서 인도네시아 삼림개발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이어 1969년 인니동화가 동부칼리만탄주 발릭파판에 12만 헥타르, 1970년 경남교역이 동부칼리만탄주 따라칸에 20만 헥타르, 1973년에는 한니홍업이 중부칼리만탄주 라만다우 강 유역에 11.5만 헥타르, 1976년 말에는 아주임업이 서부칼리만탄주 멀라위 강 유역에 11.5만 헥타르의 천연림 개발에 착수하면서 한국기업에 의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이 러시가 이루어졌다. 한국 기업들이 의해 개발한 임지에서 생산한 원목은 대부분 한국, 일본 대만 등지로 수출되었고, 한국은 안정된 원자재 공급을 발판으로 1970년대 세계 합판산업의 선두 국가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1980년부터 원목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가공품을 수출하도록 규제했다. 1985년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합판공장을 짓지 못했던 원목개발업체는 도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원목 수출금지 조치 이후, 기존의 한국계 원목개발 회사들 가운데 합판공장을 소유한 코린도와 코데코 정도의 기업들만이 원목개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같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합판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합판 생산량과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나 마침내 1990년 중반에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경쟁국가들을 순차적으로 따돌리고 합판수출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조림산업과 산림 협력

2019년 기준 코린도그룹 합판사업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공림 경영을 통해 생산된 양질의 원목으로 연간 50만 입방미터의 합판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98%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글로벌 합판 메이커로 성장하여 한 해 수출실적 3억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 전체 합판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코린도그룹 이외에도 한국 대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팜오일 분야에 대상홀딩스, 삼성물산, 삼탄, LG상사, JC케미칼, 포스코대우 등이 진출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중부자바주 스마랑에서 바이오매스 시범조림, 산림조합중앙회는 서부자바주와 칼리만탄에 속성수와 고무나무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림P&P는 파푸아에서 펄프 생산용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림협력에는 한국 정부와 기관의 지원과 노력도 적지 않다. 1979년 한-인니 임업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조림투자, 연구협력, 산림개발, 산림보호, 인력개발 분야까지 확대 발전해왔으며, 2007년 한-인니 산림포럼 구성으로 양국의 산림협력은 한층 도약하게 되었다. 2005년 수마트라섬 북부를 휩쓴 쓰나미로 파괴된 해안 맹그로브숲을 복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원조 사업을 선두로, 2006년에는 서부자바주 보고르 롬핀(Rumpin) 지역에 현대식 양묘장 조성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롬복 섬에 소규모 산림전용·황폐화 방지와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REDD+) 시범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정부 간 산림협력사업과 조림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한국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합의하여 2011년 인도네시아 산림부(현 환경산림부) 내에 한-인니산림센터를 설치하고 이탄지복원, 산불관리, 산림을 이용한 생태관광과 환경교육, 해외산림자원확보, 산림바이오에너지 생산, 기후변화 대응, 인재교류 사업 등 양국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건기를 축축이 적시는 ‘나눔의 사랑’

한인회의 나눔이 화제다. 지난 8월 20일 중부자바 한인회(채환 회장)가 지난 3년 동안 AI Muawana과 Roudlotuljannah등 스마랑의 웅아랑 소개 Manarul Maburur 고아원을 방문하여 희망을 주었다.

중부자바 한인회가 4년 전, 코로나 시기 채환 회장이 취임하여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후원, 공급하며 관계를 맺어 백신 670억 루피아 어치를 확보하여 70개 한인기업에 우선 집중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르바란과 성탄절 등 일 년에 두 번 이상 고아원을 찾으며 불우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이를 시작으로 <중부자바 한인회>가 동포사회

와 기업체의 관심을 얻어 당시 700여 명이던 한인 동포가 그간 신발 봉제 등이 중부 자바로 투자하며 지금은 1,500여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채환 회장이 재임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던 불우이웃돕기가 다시 시작됐다.

PT. Inocycle & PT. Hesed Indonesia 등 한인업체들이 후원한 이 행사에는 채환 회장, 류종범 수석부회장, 유성 사무국장등 임원들이 방문해 고아들을 안아 주고 놀아 주며 마음을 나눴다. <중부자바 한인회>가 현지인과 관공서로부터 관심과 성원을 얻고 있어 고무적이고 진출한 한인 업체들이 함께 살아 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취재: 이태복 (사산자바문화연구원장)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I)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 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이거나,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썼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썼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황을 보증하는 법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종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으며,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우에는 원금,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에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물이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며,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2024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8.26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0,000	
4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8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9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5,000	
10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11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12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3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4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5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16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17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8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19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20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21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2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23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24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5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26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27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28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1,000	
29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30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31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000	
32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33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34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35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36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37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8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39	이사	강수한	PT. CHAEUM DESIGN	1,000	
40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41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42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43	이 사	김일태	PT. OROM	1,000	
44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45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46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47	이사	남궁훈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1,000	
48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49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50	이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000	
51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52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53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54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55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56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57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58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59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60	이사	이성삼	PT. LSS (LIGA SEJATI SEJATRA)	1,000	
61	이사	이승수	PT. SINYOUNG ABADI	1,000	
62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63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64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65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66	이사	장영관	PT. LAYCO	1,000	
67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68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69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70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71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72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73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74	이사	최재혁	PT. INDO BUMI LESTARI	1,000	
75		No Name		1,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 (SMS 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대사관 발리분관(당직폰).....0811 3831 3659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무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64497/7203356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뽀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뽀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폰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뽀뽀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뽀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뽀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뽀뽀뽀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SMILE KIMBAB
Living World Alam
Sutera, UG floor,
Serpong Utara,
Tangerang Selatan

081292184018



SMILE KIMBAB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Kelapa Gading MOI)	0812 5723 7627 (WA)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찜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살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웅)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글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서울대(정무웅)	797 5959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 대학교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 초청공연

■ 전시 및 오프닝 공연:

-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 JKCC(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음악협회의 연주
- 다양한 체험(캘리그래피 등) & 전시

인도네시아한인이주 104주년
한인의날 기념공연

주최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시간 & 장소 : 2024년 9월 20일(금) 오후 4시, 롯데몰 KOREA 360

후원 : KOREA 360